

기독교영화 한계 깨고 16만 관객 몰려! 〈예수는 역사다〉 문화선교의 새 장을 열다

2년 전인 2015년 가을, CBS는 1954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기독교 영화사역에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의 방송 선교를 이끌어 온 CBS가 영화를 통해 문화 선교의 새 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출발한 〈CBS 시네마〉.

2015년 첫 상영작 〈프리덤〉의 10만 관객 동원, CBS 최초의 기독교 다큐 영화 〈순종〉의 제작 및 보급, 그리고 올 여름 다양성 영화로는 기록하기 힘든 16만 관객을 돌파한 〈예수는 역사다〉까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큰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CBS 시네마〉는 한국 문화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고 있다.

〈CBS 시네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非)기독교인들도 공감하며 볼 수 있는 ‘패밀리 프렌들리 영화(Family Friendly Movie)’를 수입, 배급할 뿐만 아니라 CBS가 직접 기독교영화를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폭력과 선정성이 지배하는 한국 영화계에 사랑,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영화’를 보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 나가고, 이 사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사명인 것이다.

올 여름 많은 이들을 예수님의 실존 앞으로 이끈 〈예수는 역사다〉는 선교의 도구로서 ‘영화’의 가치를 증명해 냈다.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믿는 시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선교적 도구로 기능하는 ‘영화’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CBS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고 굳게 믿던 한 남자가 예수님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역사적 증거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발견해 나가는 놀라운 진실과 감동은 영화를 통해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됐다.

극장 누적관객 수 16만 6000명을 기록하며 작품성 또한 인정받았다는 호평을 듣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단체관람, 공동체상영 등을 통해 많은 관객과 성도들을 만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글 자막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층을 배려해 남녀노소 누구나 영화의 은혜와 감동을 누리도록 한국어 더빙판을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CBS 시네마〉의 다음 걸음은 기독교 한국극영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을 〈CBS 시네마〉가 ‘영화’로 보여주고자 한다.

11월에 개봉하는 〈내게 남은 사랑을〉은 불치병에 걸리고서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심을 느낀 한 가정의 이야기다.

이 영화가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한다. [기사]

〈예수는 역사다〉 공동체(교회) 상영문의
☎ CBS시네마국 02-2650-7942

한국교회와 함께 걸어 온 CBS, 대한민국도 인정하다

제54회 방송의 날, 한국방송 90주년 방송진흥 유공 포상식에서 훈장과 표창 대거 수상

CBS가 방송의 날을 맞아 방송 90주년 유공자 시상식에서 훈장과 표창을 대거 수상했다.

9월1일, 63빌딩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CBS 한용길 사장이 화관문화훈장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한용길 사장은 국민정서를 크게 함양하는 방송콘텐츠 제작으로 문화발전에 기여했고 기독교음악전문채널 JOY4U 운영을 통해 CBS의 본래적 사회문화기능에 부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권영철 선임기자가 문화포장을, 손근필 PD가 대통령표창을, 이광조 편성국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이사지기 정관용 진행자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좌로부터 송홍석, 정용선, 권영철, 한용길사장, 배미향, 손근필

이밖에도 〈저녁스케치〉 배미향 진행자와 송홍석 카메라감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정용선 기술기획관리부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CBS의 선한 자라는 제44회 한국방송대상에서도 이어졌다. 〈김현정의 뉴스쇼〉의 ‘대선기획

라디오 대통령 민생현장을 가다’가 라디오 시사보도 부문 작품상을,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이 라디오 음악구성 부문 작품상을, 〈한동준의

FM 팝스〉가 개인상 진행자 부문을 수상했다.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2008년부터 한국방송대상 시사보도 라디오 부문 4회 수상이라는 기록을 남겨 CBS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방송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이렇게 CBS는 방송 선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송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

CBS의 방송 유공 수상과 프로그램 수상은 한국교회의 자랑이며 CBS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있는 크리스천 모두의 기쁨이다. [기사]

세계에서 가장 긴 영상으로 제작된 '암송성경 1189' 독일 종교개혁 500주년 예배에서 봉헌



〈'암송성경 1189'가 봉헌된 독일 크로이츠 교회 봉헌예배 전경〉

- 참여인원 10,900명, 427개 단체 참여, 20개국 참여, 런닝타임 110시간, 제작기간 9개월 -
- 독일 크로이츠교회 봉헌(루트비히스부르크), EKD(독일개신교연맹) 주관 종교개혁만국박람회(비텐베르크) 및 성경박물관(슈투트가르트) 전시 -

7월 9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크로이츠 교회(kreuzkirche) 주일예배에서는 아주 특별한 봉헌행사가 열렸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CBS가 제작한 〈암송성경 1189〉가 종교개혁의 발상지인 독일교회의 종교개혁 기념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

이날 봉헌은 CBS 성경암송대회 우승자인 김나임 어린이(초2)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을 암송하는 시연과 더불어 이뤄졌으며, 〈암송성경 1189〉가 제작되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증거 하는 자리였다.

독일 현지의 반응은 뜨거웠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반응에 놀랄 정도였다.

독일 개신교 연맹(EKD) 주최 종교개혁만국박람회에 공식 전시가 되었고, 15분으로 예정된 공식 인터뷰도 시간 관계 없이 진행됐으며, 참여한 각국

의 관계자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전시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암송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밝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감탄의 이유였다. 사실 암송이 익숙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획이 '암송성경 1189'인 것이다.

창세기 1장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아이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함께 참여했고, 계시록 22장은 헬라어로 암송한 그리스 아이들이 한국 정교회 암

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 하나님께 올려 드린 최고의 선물로 평가받았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민족의 언어로 직접 1장씩 암송하여 성경 총 1,189장을 암송 녹화한 영상성경인 〈암송성경 1189〉는, 다음 세대의 말씀회복을 위해 CBS가 기획하고 제작한 특별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암송성경 1189〉는 앞으로 국내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CBS 본사 로비는 물론 기독교역사박물관(곤지암)과 종교개혁500주년기념대회(킨텍스)에 전시해 독일 현지의 반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직 성경으로'라고 외쳤던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CBS는 다음세대와 함께 제2의 종교개혁을 이뤄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박정]

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대주교와 함께 피날레를 장식했다. 그야말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숨가쁘게 암송한 한 해였고, 종교

Das Wort Gottes als längster Film der Welt

Christlicher Fernsehsender aus Südkorea produziert eine Videobibel - Offizielle Vorstellung in der Ludwigshafener Kreuzkirche

SONNENBELIM
Mehr als 6000 Kinder und Jugendliche aus 20 Ländern haben sich an dem Projekt Videobibel des christlichen Fernsehsenders CBS aus Südkorea beteiligt. In einem symbolischen Akt ist eine riesige Plakette mit den Filmaufnahmen mit 100 Stunden gesteuert worden. Der Gottesdienst in der evangelischen Kreuzkirche offiziell vorgestellt und somit symbolisch der Öffentlichkeit übergeben worden.

Videobibel mit 1189 Kapiteln
Philip Wunderlich und Kim Naim wurde die Ehre zuteil, den Gottesdienst zum Abschluss zu tragen. Darin befindet sich der vermeintlich längste Film der Welt, immer dicht davor war ein Kameramann des Senders CBS. In der Videobibel wurden alle 1189 Kapitel der Bibel - Altes und Neues Testament - wiedergegeben. An dem Projekt haben sich auch Konfirmanden der Kreuzkirche beteiligt. Sie rezitierten das erste Kapitel des Matthäusevangeliums und waren dabei von einer Musikantenband begleitet. Dieser Video wurde dem Fernsehsender an-

schließend zur Verfügung gestellt. Der festliche Gottesdienst markierte den Schlüsselpunkt eines neuartigen Projekts. Der christliche Fernsehsender CBS hatte den 500. Jahrestag der Reformation zum Anlass genommen, Kinder und Jugendliche aus aller Welt ausfindig zu machen, einen Vers aus der Bibel in ihrer Muttersprache vorzutragen. Das Spektrum der Sprachen reicht von Khaschui über Deutsch und Englisch bis zu Koreanisch, um nur einige Sprachen zu nennen. Welchen Stellenwert die Übergabe der Videobibel hat, dokumentierte die Anwesenheit des CBS Elders Chae. Dieser Moderator unter der Leitung von Park Sangheok besteht aus 70 koreanischen Kirchenmitgliedern und war eigens nach Deutschland angereist. Bei dem Gottesdienst haben sie einen musikalischen Vorgriff auf das Geben, was die Besucher des Benefizkonzerts gestern Abend in der Friedenskirche erwartete, nämlich kirchliche Chormusik vom Festmessen. In seiner von einem Diktator Kim Hyung Jong auf die Bedeutung der Bibel aufbauenden Rede, wie müssen das Wort Gottes zu uns nehmen, um unsere Seele zu heilen. Das bedeutet auch, das Wort Gottes weiter zu verbreiten, also aus der Bibel zu lesen und zu rezitieren. Chung Chae Woon vom Fernsehsender CBS machte deutlich, dass man sich bei den Mitarbeitern auf die Kinder und Jugendliche konzentriert habe, die in ländlichen Regionen oder auf kleine Inseln. Der Film soll die Menschen dazu motivieren, die Bibel zu lesen und auswendig zu lernen", sagte sie. Sie hob die historische Gemeinsamkeit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hervor, wobei Deutschland ihre Teilung seines Volkes überwinden habe. Seit April 2015 pflegen der Evangelische Kirchenbezirk Lud-

wigshafen und der südkoreanische Kirchenbezirk Pfingstberg der Presbyterialkirche eine Partnerschaft. Dabei handelt es sich um einen vernetzten Kirchenbezirk, dessen Mitglieder familiäre Wurzeln in Nordkorea haben. Zum Teil sind diese nach Südkorea geflüchtet, zum Teil leben sie Angehörigen noch in dem von Diktator Kim Jong-un beherrschten Nordkorea.

Hoffnung auf Verständigung
Sollte es zu der Wiedervereinigung kommen, wollen sie nach Pfingstberg zu gehen, um dort das kirchliche Leben zu gestalten. Angesichts ist der virtuelle Kirchenbezirk unter dem Dach der Landeskirche PCK in Korea, die aus 65 Bezirken besteht. Am 22. Juli, so kündigte die Pfarrer Elke Dangelmeier-Vincow im Gespräch mit unserer Zeitung an, wird eine Delegation aus dem Kirchenbezirk erwartet. Gemeinamen Themen sind neben der Überwindung der Völkervermischung, die Befreiung, die in Deutschland ihren Anfang nahm, aber auch bei den Christen in Korea ihre Auswirkungen gezeigt hat. Auch das Interesse an der Diakonie sei groß.

Plakat Kim Hyung Jong und Elke Dangelmeier-Vincow bei der Übergabe der Videobibel, begleitet vom südkoreanischen TV-Sender CBS. Foto: msa/mae

〈'암송성경 1189' 봉헌 독일 현지언론 기사〉

2017 CBS 〈암송성경 1189〉독일 에필로그



〈프란지스카 스토크 블랙/독일 슈투트가르트 성경박물관 관장〉

이 암송성경은 특별한 아이디어로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비더리케데/독일개신교협의회(EKD) 직원〉

성경을 통해 종교개혁정신을 계속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문화권인 한국에 의해 독일의 종교개혁이 궁극적인 빛을 발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프로젝트가 독일과 한국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심어주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엘케 당델마이어/크로이츠 교회 담임목사〉

성경을 의무감 보다는 기쁨 가득한 모습으로 외우는 표정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과 이러한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음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성경을 알아가고 암송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이끌어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츠 드래셔(도여수) 선교사/EMS 복음선교연대 아시아협력국 담당〉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CBS가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참여 인원이나 규모로 봤을 때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가고 전 세계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으로 종교개혁 정신을 되새긴 CBS

CBS는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봄부터 다양한 특집 캠페인/프로그램을 준비해 크리스천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먼저 '아하 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사건/에피소드 등을 6분 길이의 24장으로 간추린 특강 프로그램이다. 개혁적인 교회사학자 배덕만 목사(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고, 신학생에게도 어렵고 딱딱한 종교개혁사, 종교개혁의 주요 쟁점들을 젊은 층의 감각에 맞게 짧은 영상으로 구성해 새바람을 일으켰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논제'에서 이름을 착안해 만든 '95가지 시선'은 종교개혁/한국교회의 오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크리스천들과 나눈 인터뷰 Show다.

고등학생/패션칼럼니스트/외국인 교수/레퍼/교회 청년/여성 신학자/교회 사모 등 성별 연령별 직업별로 다양한 크리스천들의 시선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됐다. CBS TV를 통해 방송된 콘텐츠들이 CBS의 소셜 미디어(유튜브/페이스북)를 통해서도 공유된 후 CBS 라디오(표준FM) 캠페인으로 방송되며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CBS가 가장 중점을 둔 콘텐츠는 3부작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쓰는 루터 로드>다. 4명의 '종교개혁 원정대'가 독일 종교개혁 유적지를 순례하며 한국교회의 오늘을 되짚어 보는 신개념 다큐멘터리로, 젊고 대중적인 루터 연구가 최주훈 목사(중앙루터교회 담임), 신학

을 전공한 싱어송라이터 제이미 스톤즈, 기독교청년운동가 남기평(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총무) 등이 순례를 함께 했다.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출연자는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종편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해 '독다(독일 다니엘)'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모았던 그의 출연 소식에 <다시 쓰는 루터 로드>는 방송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13명의 다큐멘터리 출연진/제작진들은 지난 4월 2주일 가까운 독일 현지 촬영을 소화해냈다. 기존 종교개혁 유적에 숨겨진 내용을 루터 전문가 최주훈 목사, 진지한 독일 청년 다니엘 등 출연진들이 심도있게 탐구했다는 후문이다.

뿐만 아니라 루터가 설계한 최초의 개신교 예배당인 '토르가우교회' 등 한국 개신교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종교개혁 유적지도 만날 수 있으며, 지난 5월말 성황리에 개최됐던 종



교개혁 500주년 기념 '독일 교회의 날(Kirchentag)'의 생생한 현장도 독점 공개된다. 특히 이 <다시 쓰는 루터 로드>는 그 작품성과 의의를 인정받아, 미래창조과학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3부작 <다시 쓰는 루

터 로드>는 10월 중순 CBS TV를 통해 3부작으로 방송되며, 구체적인 편성 시간 등 관련 소식은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refo201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BS의 모든 종교개혁 특집 프로그램들은 CBS 유튜브 공식 채널(www.youtube.com/CBSJOY)에서 무료로 다시 만날 수 있다. [박정민]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2007년에 CBS TV에서 첫 선을 보인 <CBS성서학당>이 10월로 10돌을 맞는다.

실제 학교수업처럼 종이 울리면 강사가 등장하고, 4명의 패널이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는, 어쩌면 단순한 형식의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의 '말씀 사랑'이 아니었을까? 실제 <CBS성서학당>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됐다는 감

사의 사연들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에 갖든 오해를 바로잡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감사의 인사도 있고, 잘못 들여놓았던 미혹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고백도 있다. 그렇듯이 이 프로그램은 혼자서는 깨닫기 어려운 성경의 숨은 뜻을 알게 하고, <구약>과 <신약> 66권의 전체적 맥락을 넘나들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한다.

<CBS성서학당>제작진은 10돌을 맞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시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TV를 통해서 보기만 했던 강의를 녹화현장에서 함께하고 강사들과 대화도 할 수 있는 열린 특강을 준비한 것이다. 9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목동 CBS 사옥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 특강에는 <CBS성서학당>에 참여하고 있는 여섯 명의 강사가 현장에서 시청자들을 만났다.

10년 전 첫 방송 때 <CBS성서학당>은 김민웅 목사의<창세기>강의, 신우인 목사의<출애굽

기>강의, 류영모 목사의<요셉>강의로 시작했다. 그 후 지난 10년 동안 24명의 강사가 강의에 참여했으며, 62개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 강의 가운데는 중복되는 강의도 있고, 별도의 특강도 있었음을 감안하면 아직도 미처 영상으로 담지 못한 말씀이 많이 남아있는 셈이다. 그래서 <CBS성서학당>의 10년은 어쩌면 이제 겨우 시작일지도 모른다. 말씀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CBS성서학당>도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줄 명강의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담아나갈라 믿는다. [박정민]

CBS가 24시간 드리는 주님의 노래 -JOY4U 개국 2주년



2015년 9월 14일 CBS는 24시간 크리스천 음악채널을 열었다.
이름은 JOY4U.
음악을 통해 당신(하나님과 청취자)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것.
JOY4U가 개국 2주년을 맞았다.

1. JOY4U는 새로운 플랫폼

JOY4U는 지상파 방송들 중에 유일하게 CBS만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전용 채널이다.

JOY4U는 CBS레인보우 앱을 통해 모바일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청취할 수 있게 됨으로 방송의 가청권역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청취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측정 가능한 모바일과 인터넷의 접속자 통계를 보

면 개국 초기 하루 오천명 수준에서 지난 6월 현재 3만 5천명을 돌파하여 7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올 해 말까지 접속자를 하루 5만명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JOY4U는 모바일과 인터넷, 케이블과 IP TV등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다.

2. JOY4U는 강력한 선교의 도구

JOY4U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

껴지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히말라야의 산지에서 공산권 국가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어렵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하루 종일 JOY4U를 들으며 힘을 얻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병원의 간호사가 백혈병으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가족에게 JOY4U를 알려주며 도움을 청하자고 해서 사연을 보냈더니 JOY4U의 애청자가 적극적으로 수혈을 해주었다. 이렇게 JOY4U는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선교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3. JOY4U는 새로운 소통의 모델

라디오의 미래, 특히 소통의 방식이 다른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하는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JOY4U는 이런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크리스천 문화 콘텐츠에 목말라하던 이들에게 24시간 방송되는 크리스천 음악 방송은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 있다. 국내 정상급 CCM가수들이 진행하는 JOY4U는 다른 채널과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JOY4U는 일단 듣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열어 놓고 듣는 이들이 많다.

한 마디로 JOY4U는 젊은 세대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소통의 모델이다. 이제 만 2살이 된 JOY4U는 성장해가는 아직 어린 아이임이 확실하다.

하지만 JOY4U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JOY4U는 차별화된 콘텐츠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할 CCM사역자를 찾습니다!! CBS크리스천 뮤직페스티벌

제28회 <CBS크리스천뮤직페스티벌>이 오는 12월 개최된다.

가스펠 오디션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 단순히 가수로서의 성장을 꾀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대와 복음을 노래할 '찬양 사역자'로 발돋움할 기회를 열어주는 역사와 전통의 크리스천음악 축제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이례적으로 신인과 기성 사역자의 구분 없이, 창작곡과 기성곡을 가리지 않고 경연 참여가 가능하도록 폭을 넓혀 더 많은 이들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또 CBS의 24시간 인터넷 크리스천 음

악방송인 JOY4U의 공개방송을 통해서 예선이 치러지고 본선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공개 오디션다운 심사와 출전자에 대한 홍보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바탕으로 개성과 실력을 겸비한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사역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 속에서 울려나오는 감동의 찬양을 부르기를 소망하고 있는 이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대한민국 CCM의 부활과 비상을 이끌게 되기를 기대한다.

관록의 찬양집회 인도자인 강명식 숭실

대 교수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CCM을 대표하는 찬양사역자들이 본선에 오른 출전자들과 듀엣으로 무대를 꾸미는 등 '찬양으로 하나되는 워십페스티벌'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줄 이번 대회는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오는 10월9일까지 1차 접수를 받으며, 10월21일 2차 CBS 현장오디션과 이어지는 3차 JOY4U 오디션을 통해 최종 본선진출자가 가려지게 된다.

삶이 살아 숨쉬는 찬양, 그 생동감 넘치는 전 과정이 대한민국 CCM의 역사가 되고 증거가 되는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적극 추천한다. 



CBS JOY4U를 만나는 3가지 방법

CBS JOY4U는 스마트 라디오앱 CBS 레인보우를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모바일과 PC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01.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전국을 넘어서 전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찬양방송 CBS JOY4U를 고품질로 듣고 방송진행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02. PC에서 고품질로!

컴퓨터에 CBS 레인보우 위젯을 설치해 보세요! 전세계 어디서나 CBS 라디오와 JOY4U를 청취,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에 드는 노래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CBS 홈페이지에서 지금 내려 받으세요!
<http://rainbow.cbs.co.kr>



03. TV로 크고 선명하게!

위성방송, IPTV, 케이블TV에서 JOY4U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위성방송은 스카이라이프 341번에서, IPTV와 케이블 TV는 기독교음악채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JOY4U 콘서트 일정

- 9월 10일 : 부광감리교회
- 9월 14일 : 여의도침례교회
(JOY4U 2주년 콘서트)
- 9월 24일 : 꽃재교회
- 10월 28일 : 목동아이스링크
(최인혁 찬양사역 33주년 기념콘서트)

JOY4U DJ 무료 콘서트 신청

출연 : JOY4U의 대표 DJ 최인혁, 송정미 등 유명 CCM 가수(일부 변경 가능)

공연비용 : 무료(전액 CBS 부담)

요청사항 : 콘서트 중 CBS 방송선교를 위한 정기후원신청서 작성시간

신청문의 : 02-2650-7951 (CBS 선교국 선교협력부)

CBS TV (sky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CBS 100만 방송선교사가 되어주세요!

CBS는 지난 6월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동안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주제로 2017 CBS 부흥회를 방송했습니다. 방송을 제작하는 TV제작국과 선교국 직원들이 기도도 함께 준비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부 <사명>편은 CBS 방송선교의 사명과 열정을,

2부 <나눔>편은 섬김과 나눔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며

3부 <선교>편에서는 선교지와 시청자들을 이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4부 <말씀>편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성경 전체인 1189장을 다음세대를 이끌어 나갈 어린 친구들이 암송하는 암송성경 캠페인에 대



2017 CBS 부흥회 '주여! 나를 보내소서'
2017년 10월 18일(수)~21일(주일)

해 나누며 매년 해오던 방송 틀에서 벗어나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집회현장이 스튜디오에 재현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방송이 시작함과 동시에 한 통화 5천원인 ARS 후원전화는 물론 설 새 없이 이어지는 후원 문의전화와 후원가입으로 호응해주셨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CBS는 생명을 살리는 방송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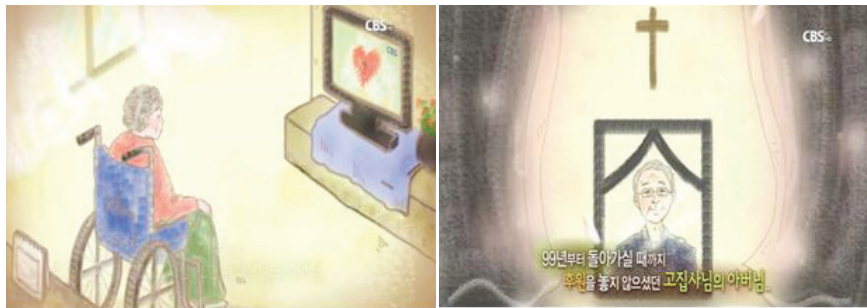
CBS는 오는 10월 18일부터 방송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할 CBS 부흥회를 다시 한 번 방송할 예정입니다. "CBS가 빛과 소금의 방송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100만 방송선교사 되어주세요!"



후원자 STORY

'대를 이은 CBS 사랑'

1년 전만 해도 휠체어에 앉아서 CBS 방송을 시청하셨던 최집사님의 어머니. 99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후원해 놓지 않으셨던 고집사님의 아버지. 오랜 기간 후원해주시던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님의 뜻을 이어 CBS 방송선교후원을 이어가시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까지 대를 이은 이 섬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인 CBS JOY4U가 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급성백혈병으로 수혈이 긴급했던 박00님. 하지만 혈액이 모자라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서울대병원 관계자가 CBS JOY4U에 사연을 올려보라고 권유를 했고, 이 사연이 방송을 타자마자 JOY4U의 빅팬(Big fan)이신 정광준님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수혈을 해주셔서 큰 위기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이 일로 따님이 CBS에 감사의 뜻을 담아 후원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쾌유를 위한 기도도 부탁하셨지요. JOY4U를 통해 박00님의 귀한 생명이 살아났고, 이제는 귀한 영혼이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고 "CBS의 또다른 미션 - 기독교영화 사업"

광주서정교회 장헌권 목사

바야흐로 '영화'의 시대다.

대중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예수는 역사다>는 블록버스터 상업영화의

독과점 속에서도 16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영화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왜 CBS의 영화사업이 중요한가?

먼저 침체해가는 선교와 전도 영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선교방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기독교영화의 보급은 참신한 아이디어다.

불신자들도 이런 영화를 통해 기독교를 접할 수 있고, 또 아는가? 영화 한 편에 감동받아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가질지.

올해 구순의 천 권사님이 최근 CBS의 방송선교사가 되어주셨습니다.

40대 중반에 홀로되어 자녀들을 양육하며 고단한 삶을 사셨다는 천 권사님.

힘들 때마다 CBS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딜 수 있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자녀들도 안정되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것이 CBS에 늘 빛진

자의 마음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준 용돈을 모아 하나님께 드린다면 기뻐하셨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길 것은 오직 예수 안의 삶' 뿐이라는 말씀이 권사님을 통해 CBS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CBS 100만 방송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선교후원계좌 예금주:(재)CBS

우리 212-001999-13-045

국민 802-25-0009-268

농협 358-17-000404

ARS 후원 060-808-0000

후원 문의 02-2650-7004

후원 홈페이지 http://love.CBS.co.kr

광주CBS

교회연합 첫 새벽기도회 열어, 6.17대성회 성료



지난해 '신천지 척결 6.26대성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광주CBS가 6월 17일 오전 5시30분 구 도청앞 5.18광장에서 5천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새벽기도회를 열었다.

이번 기도회는 광주시 기독교교단 협의회 회장인 광주중흥교회 김성원 목사의 대표 기도, 월광교회 김유수 목

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광주서광교회 고광석 목사의 말씀과 기도로 진행됐다. 광주CBS 김진오 본 부장은 "성황리에 끝난 6.17 새벽대성회를 계기로 광주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지역발전등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하다"면서 "사무엘 당시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

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 개최한 미스바 성회 같은 기도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광주지역 교계에는 새벽기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같은 놀라운 사역을 CBS가 감당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사진]

울산CBS

창립13주년 울산CBS



올해로 창립13주년을 맞은 울산CBS는 5월19일 울산제일성결교회(김성국목사)에서 JOY4U CCM콘서트를 마련했다. CCM가수 최인혁씨의 은혜가 넘치는 콘서트로 모인 성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며 CBS방송선교사로 동참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었다.

또, 6월 26일에서 29일까지 3박4일에 거쳐 울산강남교회(정병원목사)에서 CBSTV를 통해 친숙해진 "이웃목사의 성경먹집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으로 울산CBS는 말씀에 빈곤을 느끼는 한국교회에 풍성한 말씀이 넘쳐나가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

전남CBS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운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토크콘서트가 7월 2일 전남 광양교회 대예배실에서 손동연 사모(고 손양원 목사 셋째딸)를 비롯한 성도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남CBS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운동주 시인 탄생 10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외친 항일시인이었던 그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오늘

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운동주 일대기 사진전 시회, '불멸의 청년시인 운동주'의 저자 신윤식 선교사의 강연, 운동주의 대표 시 낭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순천매산여자고등학교는 7월 20일 순천 한 극장에서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보면서 방학식을 했다.

3학년 김민술 학생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심이나 궁금한 점이 있었다"며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믿지 않는 믿든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질수 있는 큰 영화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미션 스쿨의 방학식이 CBS의 기독교 영화로 채워진 현장은 또다른 선교의 미래를 보여준 뜻 깊은 자리였다. [사진]

청주CBS

〈예수는 역사다〉시사회 개최



청주 CBS가 '예수는 역사다' 영화의 시사회를 충북 제3의 도시인 제천시에서 처음 열었다. 청주CBS는 지난 3일 제천 제일감리교회 소극장에서 목회자와 성도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예수는 역사다' 시사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청주CBS는 제천기독교연합회, 제천성시화본부 등과 공동으로 영화를 관람함으로 제천시 교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

부산CBS

“7080 가족사랑 콘서트” 성료



부산CBS가 마련한 “7080 가족사랑 콘서트”가 8월 5일(토)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렸다. 가수 김범룡, 도시의 아이들 등 유명가수들이 참여한 이번 공연에 피서객등 1만여명의 관객이 모여 한여름 밤 즐거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올 3월 음악FM 서부산 중계소 개국으로 난청이 해소된 부산 서부지역에서 열려, 청취층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본 행사에 앞서 오후 1시부터 다대포 해안공원 일원에서 부산CBS에서 마련한 이색 자전거 체험 “스피닝 파라다이스”도 펼쳐졌다. [사진]

대구 CBS

칼 귀츨라프 한국선교 185주년 기념행사



대구CBS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츨라프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대구동일교회와 함께 지난 7월 24일부터 2일 간 충남 보령시 고대도를 찾았다.

행사가 열린 고대도는 인구가 100

여 명에 남짓한 작은 섬이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칼 귀츨라프가 선교를 했던 곳으로 의미가 큰 곳이다.

행사 장소로 사용된 '동일교회 고대도 선교센터'는 칼 귀츨라프 선교사의

선교정신을 이어받아 고대도와 인근 도시의 선교, 선교사 훈련과 재교육 그리고 안식년 선교사들의 피정을 목적으로 설립, 지난 7월 10일 개소됐다.

오현기 목사(대구동일교회 담임)는 “칼 귀츨라프는 고대도에서 선교하면서 얻은 문화적, 지리적 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선교를 피력한 장본인으로 개신교 선교 전략의 최초 입안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칼 귀츨라프의 한국선교 185주년을 축하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이 곳 고대도에 지속되기를 당부했다. [사진]

경남CBS

창원연주소 시대 열어/가청지역 확대



경남CBS가 연주소를 창원으로 이전하고 선교방송으로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2001년 3월 마산에서 개국한 경남CBS는 16년동안 마산지역을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해 왔는데 2000년 통합 창원시 시대를 맞아 연

주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경남CBS는 열악한 사옥 환경을 극복하고 방송장비의 노후화 개선을 목표로 이전 계획을 세워 지난 연말 이전 작업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 마무리를 지었다.

또한 이전과 함께 모든 방송장비를 디지털 장비로 전면 교체해, 보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음질로 방송을 하고 있다.

경남CBS가 창원으로 연주소를 이전함으로써 경남CBS는 창원시를 비롯해 김해, 거제, 통영 등 경남 동남부까지 선교 영역을 넓혔고 경남과 창원시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CBS의 영향력과 위상을 더 높힐 수 있게 되었다.

경남CBS의 연주소 창원 이전과 더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도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 진주에도 경남CBS진주 중계소가 세워졌다.

이번 중계소 개소로 사천을 포함해 50여만명이 CBS와 함께 하게 되었으며 또한 CBS진주운영이사회도 구성돼 진주지역이 복음의 진주(眞珠)가 될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대전CBS

천안시운영이사회 회장에
하늘샘교회 이성수 목사 취임

대전CBS 천안시운영이사회 회장에 하늘샘교회 이성수가 목사가 취임했다.

대전CBS는 7월 5일 오전 11시 천안 하늘샘교회에서 대전CBS 천안시운영이사회 회장 및 이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에서는 조치원성결교회 최명덕 목사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천안시운영이사회 회장에 취임한 이성수 목사는 "대전CBS와 긴밀히 협력해 방송선교와 기독교문화 확산, 이단대처 등의 사역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전북CBS

종교개혁 뮤지컬 <더 북> 개최



종교개혁 100여 년 전, 성경을 지키고자했던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룬 뮤지컬 '더북(The Book)'이 전북지역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6월 17일 전북CBS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뮤지컬 '더북'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 열린 공연은 2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

이 발 디딜 틈 없이 객석을 가득 메운 채 진행됐다. 관객들은 오직 복음 전파를 소명으로 기꺼이 화형대를 택한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숨죽인 채 무대를 지켜봤다.

뮤지컬 <더 북>은 15세기 초 민초들을 탄압한 로마가톨릭에 대항해 성경을 통째로 외워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된 '롤라드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정용비 전주온누리교회 담임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에 많은 은혜를 느낀다"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전북CBS에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포항CBS

울릉도 교회방문 선교 사역

포항CBS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울릉제일교회와 도동침례교회, 울릉동광교회를 차례로 방문해 CBS JOY4U, 신천치아웃, 종교개혁 500주년 사역을 소개하고 방송선교에 동력을 요청했다.

울릉도는 복음화율이 40%에 이르며 CBS 라디오 수신이 안되는 지역이어서 레인보우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JK김동욱&서영은 밴드'가 출연한 2017 포항CBS 썸머재즈콘서트가 7월 18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자리를 가득 메운 1천여명의 시민들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무대위를 이겨내는 힘을 얻었다며 즐거워 했다. [사진]



제주CBS

제주CBS아가페합창단,
제주어 보전차원 제주어 노래 첫 선

제주CBS 아가페합창단이 7월25일, 제주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7회 제주늘푸른음악회'에 출연해 제주어 창작 합창곡 '사랑이 마력(사랑이 매력)'과 '게메마섬(그러기에 말입니다)'을 불러 관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정우 단장은 "제주어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어 보전을 위해 이번 <늘푸른음악회>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봤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아 앞으로 다양한 연주회를 통해 제주어 노래를 활발하게 부를 예정이다"고 밝혔다.

40여명으로 구성된 제주CBS 아가페합창단은 찬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음악활동으로 지역 사회의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해 지난 1984년 창단했으며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10여 차례의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

강원CBS

지역교회를 살린다,
은혜와 감동이 있는 '숨 콘서트'

강원CBS 원주방송에서는 원주청년관과 협력하여 지난 2월부터 '지역교회초청 특별공개방송 숨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수나 연주자의 공연을 수동적으로 관람하다 돌아가는 기존 콘서트 형식의 한계를 탈피하여 초청된 교회의 성도들이 주인공이 되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CCM가수를 개 교회 자체로 초청할 수 없는 작은교회가 우선으로 참여하고 대형교회가 지원하고 응원하는 '숨 콘서트'는 해당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

닌, 크리스천 모두가 공감하는 사연들로 꾸며져, 참여하는 교회나 방송을 듣는 일반 청취자 모두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배시간에 늦으면 안된다고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다섯 살 딸, 교회가 나를 키웠다면 교회에서의 성장했다며 추억을 되돌아보는 청년 등 성도들의 다양한 사연을 전하며 울고 웃는 모습은 이 특별한 공개방송에 참여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이 되고 있다. [사진]



CBS기독교방송과 함께 하는 사랑, 섬김, 나눔

방송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주신 CBS방송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앞으로도 CBS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세상 끝날까지 회원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 선교후원 안내 : 02-2650-7004
■ 선교후원 ARS : 060-808-0000
■ 선교후원홈페이지 : love.cbs.co.kr

■ 선교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 (재)CBS
국민은행 802-25-0009-268
우리은행 212-001999-13-045
농협 358-17-000404